

■ 주요 뉴스: 연준 부의장, 테이퍼링 시행 조건은 충족, 조기 금리인상은 주의할 필요

- 미국 재무장관, 노동시장은 내년에 완전고용을 달성할 전망
- ECB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
- 중국 인민은행, 대출우대금리(LPR)를 18개월 연속 동결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4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2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 지속되며 사상 최고치 근접
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6주래 최고 수준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위험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0.1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 전환 전망 등으로 5월 이후 최고 수준
독일은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견해 등으로 2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7.1원, +2.1원) 0.2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0/20일	10/19일	전일대비			10/20일	10/1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36.2	4,519.6	0.37%	국채 금리 10y	미국	1.66%	1.64%	2bp
	유럽	470.07	468.58	0.32%		독일	-0.13%	-0.11%	-2bp
	중국	3,587.0	3,593.2	-0.17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9,256	29,216	0.14%		중국	47bp	47bp	0bp
	한국	3,013.1	3,029.0	-0.53%	위험 지표	EMBI+	-	367	-
환율	달러지수	93.62	93.73	-0.13%		VIX	15.49	15.70	-1.34%
	유로화	1.1651	1.1633	0.15%		WTI유	83.87	82.96	1.10%
	엔화	114.31	114.38	0.06%	원자재	구리	473.0	470.3	0.57%
	위안화	6.3930	6.3826	-0.16%		금	1,782.1	1,769.3	0.72%
	원화	1,174.2	1,178.7	0.38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부의장, 테이퍼링 시행 조건은 충족. 조기 금리인상은 주의할 필요

- 웰스 부의장은 11월 FOMC에서의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내년 중반 종료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언급. 내년에도 양호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며,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과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
- 다만 내년에는 공급 차질 등이 개선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.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우려하여 금리인상 등 수요를 위축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
- 한편 지역연은보고서(베이지북)는,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공급 차질과 델타 변이 우려 등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.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, 기업은 비용증가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노동시장은 내년에 완전고용을 달성할 전망

- 엘런 장관은 최근 고용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, 노동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수급이 매우 팽팽한(tight) 상황이라고 진단. 또한 경제 역시 전례 없던 코로나 19 충격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

■ 미국 연말 온라인 소비, 금년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10%로 8년 만에 최저 예상

- Adobe Analysis에 따르면, 공급 차질에 따른 제품 부족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해당 전망을 제시. 2020년은 33%의 증가율을 기록. 한편 제품 부족 등을 고려 시 소비자들의 연말 소비는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될 것으로 추정

■ ECB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

-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.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인플레이션은 결국 2%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
- 벨기에 중앙은행 운쉬 총재는 강력한 완화정책이 장시간 지속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,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

■ IMF, 유럽 내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

- 알프레드 캐퍼 유럽 국장은 가파른 물가상승의 원인인 에너지 가격 급등이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도 결국 진정될 것으로 예상

■ 영국 9월 소비자물가, 전월비 상승률은 둔화. 금리인상 전망은 유지

- 통계국,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.1% 올라 전월(3.2%) 및 예상치(3.2%) 하회. 하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영란은행의 금리정책 경로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

■ 중국 인민은행, 대출우대금리(LPR)를 18개월 연속 동결

-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시장 예상대로 이전과 동일한 3.85%로 결정. 5년물도 4.65%로 유지. Capital Economics는 다음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부양 등을 위해 5년물 LPR의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

■ 중국 9월 70개 주요 도시 신규주택가격, 전월비 0.08% 내려 6년 만에 첫 하락

-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,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를 고려할 때 이번 결과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. 다만 일부에서는 재고 수준이 낮아 주택시장의 심각한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

■ 중국 인민은행 총재, 헝다그룹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방침

- 이강 총재는 법적인 순위에 따라 채권자 및 자산 보유자의 권리가 존중될 것이라고 강조. 한편 헝다그룹은 최근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서비스그룹의 지분 50.1%를 200억달러에 매각하려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19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(확정치, 전년동월비): 3.4%, 8월(3.0%), 속보치(3.4%)
- 독일 9월 생산자물가(전년동월비): 14.2%, 8월(12.0%), 예상치(12.7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2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
- 미국 9월 기존주택판매,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주식시장 호조, 위험자산 외 투자 대안 부재가 가장 큰 요인 - 블룸버그

(Resistance to Buying Stocks Is Becoming Evermore Futile)

- 최근 미국의 성장 둔화 전망과 11월 테이퍼링 및 내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S&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. 이는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으며, 주가 상승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무익하다는 투자 마인드 확산이 주요 원인
- 이에 미국 개인,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체 투자자산에서 주식 보유 비율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사상 최고치를 상회. 아울러 비트코인 시장의 과열양상은 위험선호와 낙관론이 팽배한 금융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방증

■ 중국의 부동산세 도입,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- WSJ

(China's Magical Disappearing, Reappearing Property Tax)

- 부동산 세제 논쟁은 중국 정부에서 장기간 논의되었음에도 실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를 노출. 이론적으로 부동산 세제 시행은 지방정부 세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지만, 최근 상황에서는 세제 부과 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
- 세제 부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성장과 은행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. 중국 GDP와 가계자산에서 과도한 부동산 의존을 축소하는 방안이 중요하나, 과도한 규제는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소지

■ 양호한 중국 국채 수요, 여러 경제 문제에도 신속한 신뢰 회복을 의미 - Financial Times

(China sovereign bonds: sale marks inflection away from financial infection)

■ 글로벌 공급망 위기, 세계화의 후퇴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 - WSJ

(Supply-Chain Crisis Fuels Latest Retreat From Globalization)

■ 미국 온라인 소매가격의 상승,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부각 - Financial Times

(Online retailers fuel inflation in reversal of years-long trend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